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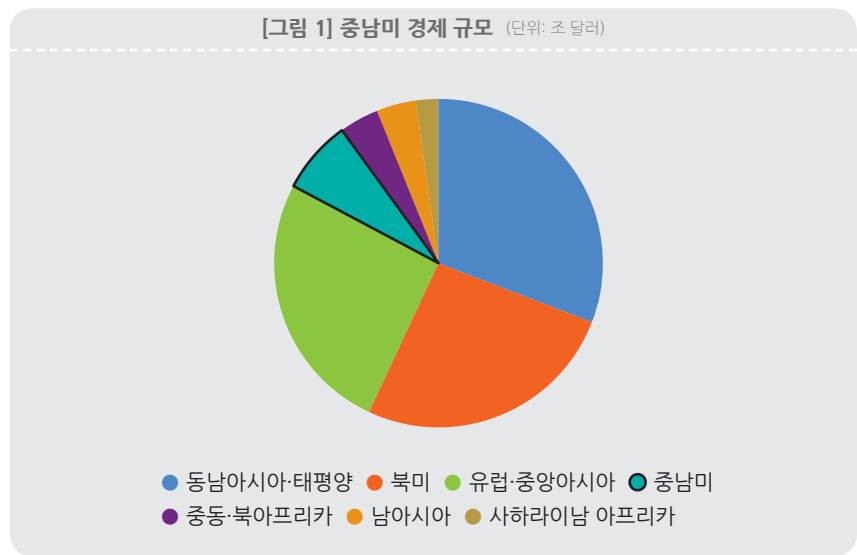
# 중남미 헬스케어 시장 규모 및 동향

김지현 대표 비티인사이트(B.T.Insight)

## ☑ 중남미 시장

중남미는 세계 GDP의 약 6.5%(2019년 기준)를 차지하고 세계 인구의 약 8.4%(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다. 중남미의 GDP는 2019년 기준 5조 7,340억 달러로 세계은행의 7개 지역 중 동아시아 태평양(26조9,250억 달러)과 북미(23조 1,770억 달러), 유럽 중앙아시아(22조 7,930억 달러) 다음이며 중동 북아프리카(3조 6,500억 달러)와 남아시아(3조 5,920억 달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1조 7,670억 달러)보다 큰 규모를 보인다. 개별 국가 GDP 규모로는 브라질이 1조 8,398억 달러로 세계 9위를, 멕시코가 1조 2,689억 달러로 세계 15위를, 아르헨티나가 4,454억 달러로 세계 27위를 기록했다.<sup>1)</sup> 중남미의 인구는 2020년 기준 6.54억 명으로 아시아(46.41억 명)와 아프리카(13.41억 명), 유럽(7.48억 명)에 이어 세계 4위의 규모로 1950년(1.69억 명) 대비 약 4배 증가했으며 2050년에는 7.62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sup>2)</sup>

[그림 1] 중남미 경제 규모 (단위: 조 달러)



출처: World Bank

1) World Bank(<https://data.worldbank.org/country>) 및 World Bank "Gross domestic product 2019."  
 2) Worldometer, "Population by Region"

중남미는 과거 높은 경제성장률에 이어 최근 교육 수준 향상으로 인한 실질임금 인상에 따라 중산층이 2008년 3,330만 가구(전체의 22.9%)에서 2018년 4,600만 가구(전체의 25.8%)로 증가했다. 또한 2018년 기준 중남미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 저축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6.4%로 나타나 높은 소비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가격경쟁력 외 품질이나 디자인 등 글로벌 소비 트렌드 추구 경향의 증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원 의존도가 큰 중남미 경제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미 중 무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에 따라 2014년 이후 2% 이하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 -8~-9%의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되나 20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 규제의 완화와 경기부양에 따라 투자와 소비 심리가 회복되어 3.6% 경제성장률이 전망되고 있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 역대 생산 비율을 확대하는 원산지 규정 등을 담은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의 출범(2020.7.1. 발효)과 중국의 생산 및 수급 차질에 따라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거점으로 부상되고 있다.<sup>3)</sup>

### 중남미 헬스케어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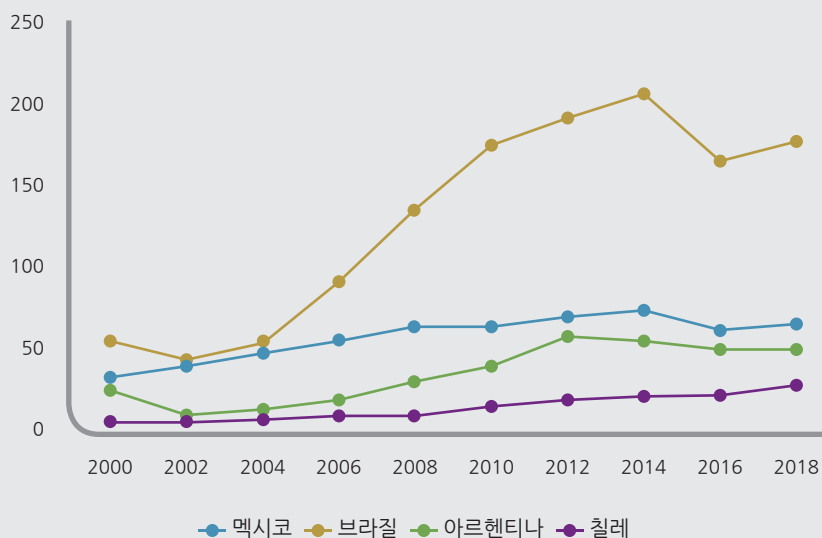
3) KOTRA(2021)

4) 경상의료비 (Current Health Expenditure)는 1년 간 국민 전체가 보건의료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지출한 최종소비를 의미함.

5) WHO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base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중남미 주요 4개국 멕시코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의 경상의료비 (Current Health Expenditure)<sup>4)</sup> 연평균증가율은 3% 이상이였으며, 칠레가 9.3%, 브라질이 6.8%로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경상의료비 규모는 2018년 기준 브라질이 1,777억 달러로 가장 크며 멕시코가 656억 달러, 아르헨티나가 500억 달러, 칠레가 273억 달러로 나타났다.<sup>5)</sup>

[그림 2] 중남미 주요 4개국 경상의료비 (2000년 ~ 2018년)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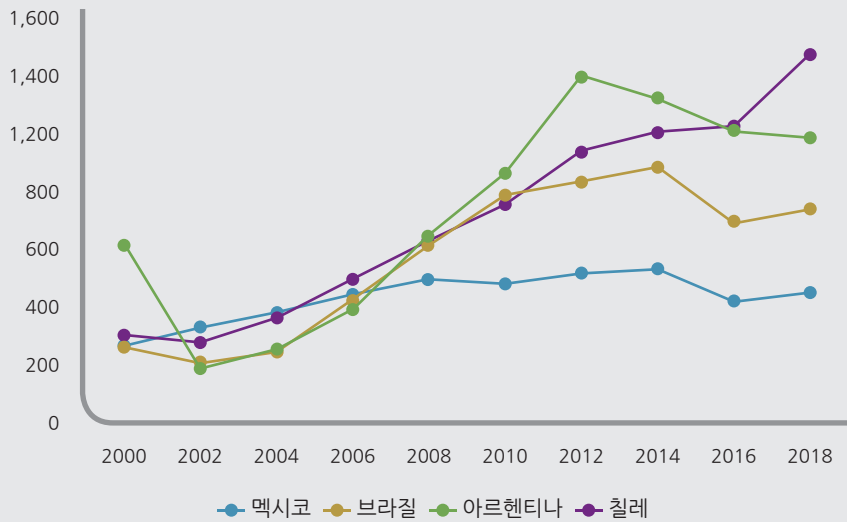


구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연평균증가율
멕시코	31.5	39.2	46.6	55.2	63.3	63.2	70.2	74.0	60.5	65.6	4.2%
브라질	54.6	44.3	54.4	91.4	135.9	175.5	190.7	206.2	165.2	177.7	6.8%
아르헨티나	26.1	8.4	12.0	17.9	29.9	40.3	57.1	54.8	50.2	50.0	3.7%
칠레	5.5	5.1	6.8	9.3	12.1	14.8	18.8	20.3	21.3	27.3	9.3%

출처: WHO

동기간 중남미 주요 4개국의 1인당 경상의료비(Current Health Expenditure) 연평균증가율은 2.5% 이상이었으며, 칠레가 8.1%, 브라질이 5.7%로 연평균 5% 이상의 빠른 증가를 했다. 1인당 경상의료비 규모는 2018년 기준 칠레가 1,455.6달러, 아르헨티나가 1,127.9달러였으며 브라질이 848.4달러, 멕시코가 519.6달러로 뒤를 잇고 있다.

[그림 3] 중남미 주요 4개국 1인당 경상의료비 (2000년 ~ 2018년) (단위: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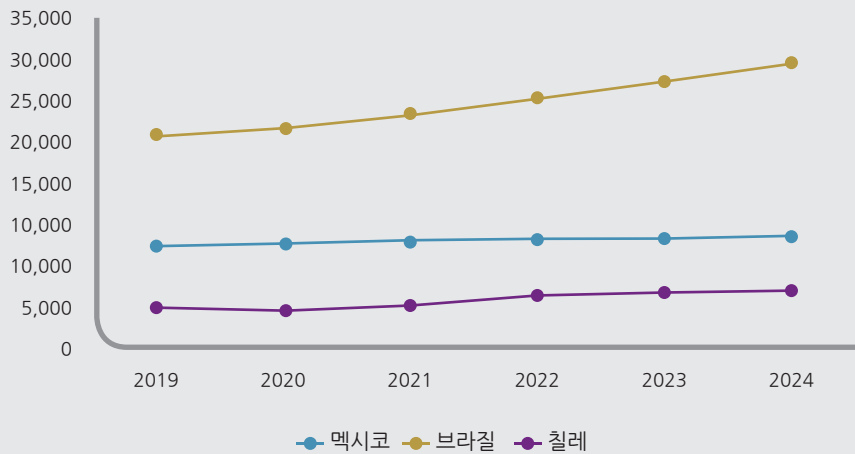
구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연평균증가율
멕시코	318.5	385.1	445.6	512.8	570.8	554.0	598.3	615.0	490.8	519.6	2.8%
브라질	312.5	246.9	295.5	485.6	707.5	896.7	957.0	1,017.0	801.4	848.4	5.7%
아르헨티나	708.8	223.8	311.6	455.8	746.5	985.0	1,368.4	1,286.2	1,153.5	1,127.9	2.6%
칠레	357.0	323.1	427.5	571.2	724.7	867.7	1,077.8	1,145.4	1,171.6	1,455.6	8.1%

출처: WHO

### 🏥 중남미 제약시장 및 의료기기 시장 규모 및 동향

중남미 주요 3개국(멕시코, 브라질, 칠레)의 제약시장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브라질이 226.58억 달러로 멕시코(105.71억 달러)의 약 2배, 칠레(42.73억 달러)의 약 5배 규모로 나타난다. 2024년까지 칠레가 연평균 6.7%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브라질이 5.8%, 멕시코가 2.2%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4년에는 브라질 시장이 301.11억 달러 규모에 이르면서 멕시코 시장(117.69억 달러)과의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멕시코, 브라질, 칠레의 제약시장 (2019 - 2024)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멕시코	10,571	11,013	11,209	11,429	11,605	11,769	2.2%
브라질	22,668	23,241	24,697	26,421	28,224	30,111	5.8%
칠레	4,273	3,971	4,345	5,393	5,677	5,902	6.7%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0) 재구성

2019년 기준 멕시코와 브라질, 칠레의 제약시장 모두 처방의약품의 비중이 80% 이상으로 나타나지만 오리지널 의약품의 비중만 보면 멕시코(52.5%)와 브라질(58.5%)이 50% 이상인 데 반해 칠레는 18.5%밖에 되지 않는다. 칠레는 전체 제약시장 규모도 작고 제네릭 의약품 시장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멕시코, 브라질, 칠레의 제약시장 구성 (2019) (단위: 백만 달러)

구분	멕시코		브라질		칠레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전체 제약시장	10,571	100.0%	22,668	100.0%	4,273	100.0%	
처방의약품	소계	8,801	83.3%	20,541	90.6%	3,548	83.0%
	오리지널	5,550	52.5%	13,261	58.5%	791	18.5%
	제네릭	3,251	30.8%	7,280	32.1%	2,757	64.5%
일반의약품	1,771	16.8%	2,127	9.4%	724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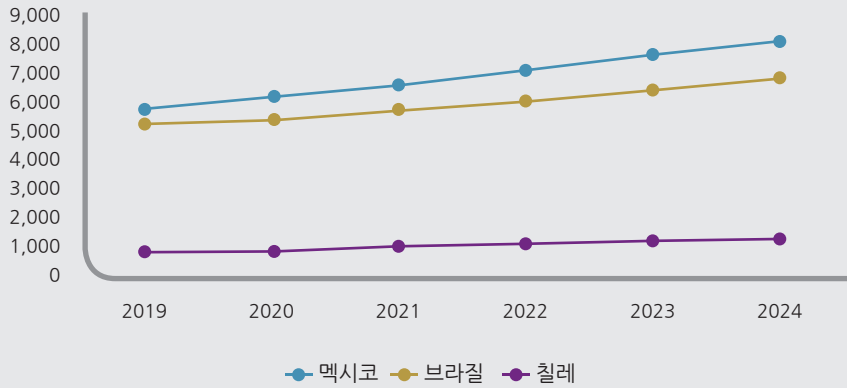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0) 재구성

멕시코는 정부의 제네릭 의약품 생산 촉진 정책과 함께 오리지널의약품의 시장 독점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USMCA의 비준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 시장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공공의약품 조달제도 개편에 따라 해외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브라질은 보건부가 2009년부터 외국-현지 제약사의 기술이전 및 합작투자를 통해 독점입찰 기회를 제공하는 공동개발협력(Productive Development Partnership, 이하 PDP)을 운영하고 있어 해외 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칠레는 2020년 1월 의약품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조달청이 공공약국과 보건소 외에도 민간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법률을 공포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공공 조달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sup>6)</sup>

중남미 주요 3개국(멕시코, 브라질, 칠레)의 의료기기시장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멕시코가 57.58억 달러, 브라질이 52.58억 달러로 5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시장을 형성했으며, 칠레는 8.95억 달러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4년까지 칠레가 연평균 8.1%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멕시코가 7.0%, 브라질이 5.3%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4년에는 멕시코 시장이 80.89억 달러 규모에 이르면서 브라질 시장(68.15억 달러)과의 격차가 좀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0)

[그림 5] 멕시코, 브라질, 칠레의 의료기기시장 (2019 - 2024)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멕시코	5,758	6,216	6,632	7,121	7,607	8,089	7.0%
브라질	5,258	5,426	5,746	6,080	6,436	6,815	5.3%
칠레	895	932	1,079	1,174	1,255	1,321	8.1%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0) 재구성

2019년 기준 멕시코의 의료기기 시장은 의료소모품(27.8%)과 기타(39.3%)의 비중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해 상대적으로 이들 품목에 시장이 집중된 반면 브라질은 의료소모품(28.1%)과 기타(20.6%)의 비중이 50% 이하이며 진단영상기기(18.1%)와 정형외과 및 보철(14.9%), 환자보조기기(10.2%)가 모두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 의료기기 품목별 고른 분포를 볼 수 있다. 칠레는 의료소모품(20.7%)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품목별 고른 분포를 보여준다.

[표 2] 멕시코, 브라질, 칠레의 의료기기시장 구성 (2019) (단위: 백만 달러)

구분	멕시코		브라질		칠레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전체 의료기기시장	5,758	100.0%	5,258	100.0%	895	100.0%
의료소모품	1,601	27.8%	1,478	28.1%	185	20.7%
진단영상기기	867	15.1%	950	18.1%	140	15.6%
치과기기및용품	169	2.9%	433	8.2%	69	7.7%
정형외과및보철	410	7.1%	781	14.9%	108	12.0%
환자보조기기	448	7.8%	533	10.1%	83	9.3%
기타	2,263	39.3%	1,083	20.6%	311	34.7%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0) 재구성

멕시코와 브라질, 칠레 모두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발생 증가에 따라 의료기기시장의 지속적 성장이 전망된다. 브라질의 경우 지카 바이러스(모기 전염 플라비 바이러스 감염병) 나 Dengue열 (모기전염 Dengue 바이러스 감염) 등 전염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진단키트와 백신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오지가 많아 원격의료 및 모바일 헬스 사업의 확대가 전망되고 있다. 칠레는 정부가 열악한 의료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 IT의 활용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원격 진단 등 헬스케어 IT 분야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sup>7)</sup>

중남미 지역 의료재정 부담의 공통적 원인인 만성질환 관련한 솔루션과 열악한 의료 인프라 문제를 해결할 헬스케어 IT 솔루션은 국내 기업 진출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다양한 전염병 대응 진단키트와 백신, 치료제 분야에서도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현지 제약사 간 합작투자를 촉진하는 브라질의 공동개발협력(PDP) 제도나 칠레의 원격 의료시스템 도입 추진 등 각국의 제도와 정책을 적극 활용한다면 공공 조달시장을 통한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

7)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0)

< 참고자료 >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 「한국의료 중남미 진출을 위한 시장 정보집 멕시코 브라질 칠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KOTRA, 2021, 「2021 권역별 진출전략 중남미」, KOTRA.

Writer

김지현

비티인사이트(B.T. Insight), 대표  
e-mail: jkim@btinsight.co.kr

BIO ECONOMY BRIEF

발행 : 2021년 7월 | 발행인 : 고한승 | 발행처 :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삼평동, 코리아바이오파크) C동 1층, www.koreabio.or.kr  
\* 관련 문의 :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e-mail : Koreabio1@koreabio.org

